



김장하는 남도 '분주한 손길' 11일 오전 담양군 고서면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겨울을 지내며 먹을 김치를 담그고 있다. /뉴스시스

존폐 기로 선 광주 공공자전거 '타랑개'

시의회 "이용률·효율성 낮고, 환경도 열악"

광주시 "이용자 효용 극대화·인프라 확충"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개'가 시범운영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필요성과 명분은 있지만, 이용률과 효율성이 낮고 이용 환경도 열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광주시의 고민도 깊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필순 의원은 지난 9일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타랑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

루 평균 이용대수는 70대 수준"이라며 "이용 시간과 장소의 확대, 결제 방법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확보와 시민 만족도를 위해서는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업과의 연계, 최소 2만대에 이르는 방치된 자전거 재사용과 자전거도로 정비, 거점 터미널 확대 등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평석 예결특위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연간 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됨에도 대당 이용률

은 4~5일에 한 번꼴로 효율성이 매우 낮고, 관련 시장 선점에서도 밀렸고, 아파트 등지에 밀집한 자전거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현상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와 다른 타 시·도 사례, 광주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더 늦기 전에 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예산을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걸 광주시 군공항 교통국장은 "도입 초창기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개선 보완 중이고 일단은 민간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는 통학이나 통근, 건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며 "다양한 이용자층의 요구에 맞춰 효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프라 확충과 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등·하교 때 학생들이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해 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편결제도 앱 개발사와 협의 중이다.

한편 타랑개는 '타라니까'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으로, 2020년 7월부터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거 350대, 주차장 51개소로 시작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다.

1000원의 이용료로 90분간 이용할 수 있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을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수가 크게 감소했다.

/조일상 기자

"어등산 투자비 지급" 조정안 불구 소송 장기화 법원 "내년 6월까지 반환" 권고...광주도시공사 "이의신청"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 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 하는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도시공사가 부지조성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다.

도시공사는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8일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고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조성비 229억 원을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2년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기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

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첫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신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에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년 뒤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무효"라며 두번째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6년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등산리조트 쪽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를 줄 수 없다.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해 선정되면 그때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화물파업 철화...광주·전남 물류 '숨통'

광양·목포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파업전 수준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보름여 만에 철회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물류도 숨통을 트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주요 수출입 관문인 광양항은 지난 7일 오후 5시부터 전남 오후 5시까지 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7770TEU(20피트 규격 컨테이너 7770대 분)을 기록했다.

평시 주·야간 하루 물동량 8027TEU에 근접한 것이다. 전남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야간 물동량도 4315TEU로 파업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그동안 선·환적이 밀리면서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있는 비율(장치율)은 68.5%로 평소보다 다소 높다. 목포항도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192TEU가 오고가 물류 흐름이 원활했다. 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공정에 차질을 빚던 건설 현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등 주요 관급 공사와 민간 대형 건설현장 10여 곳이 철근·콘크리트 수급 해결로 타설 공정 등을 재개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도 출고 차량을 실어 나르는 '카 캐리어' 108대가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권형안 기자

| | |
|------------------|----|
| 솔라시도 진입도로 개통 | 2면 |
| 야, 이상민 해임안 단독 처리 | 3면 |
| 경기 침체 경고음 | 4면 |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버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